

“AI 페퍼스, 광주시민에 사랑받는 구단으로 키울 것”



광주에 열리는 프로배구 시대

<1> 페퍼를 이끄는 사람들

19일 역사적인 첫 항해를 떠나는 AI페퍼스의 무기는 ‘특급 선장’과 ‘베테랑 항해사’들이다.

AI페퍼스는 선수 평균나이가 21세에 안 되는 젊은 팀이지만, 프런트는 경력과 실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김형실 감독은 수차례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 성과를 낸 실력자다. 김 감독은 1982년부터 1984년 LA올림픽까지 여자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았다. 1991년 청소년 여자대표팀 감독과 여자대표팀 코치를 지냈으며, 1997~1998, 2005, 2011~2012년 등 여러 차례 여자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다.

2012년에는 한국 국가대표팀이 런던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획득한 데 이어 4강까지 오르는 이변을 만들었다.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36년 만에 이룬 쾌거였다. 또 KT&G 사령탑 시절 V리그 원년(2005년 리그) 우승도 이끌었다.

화려한 경력을 쌓아 온 그지만, 올 시즌은 겸손한 마음으로 도전한다. 그는 “어렵겠지만, 1승이

김형실 감독 - 국가대표팀 감독 때 런던올림픽 4강 이끈 주인공
이성희·이영수·이영수 코치 - 선수·지도자 경력 화려한 베테랑
이상화 수석트레이너 - 15년 동안 ‘김연경 전담 트레이닝’ 경력

라도 해 보고 싶다. 처음부터 한 계단씩 나아가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짧고 패기 넘치는 배구단을 만들겠다. 어느 팀을 상대하더라도 1승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을 주는 팀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코치진 또한 국가대표·프로배구 지도자 경력을 겸비한 인재들로 포진했다.

이성희 코치는 지난 2002년 현대건설 코치를 맡으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GS칼텍스 감독으로 부임했으며, 동시에 시니어국가대표 감독도 맡았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KGC인삼공사 감독을 지냈다.

이영수 코치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한국남자배구 국가대표 선수로서 활동했다. 2001년, 2003년에는 한국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선수로도 코트를 누볐다. 2005년 LIG손해보험에 입단해 프로배구 선수로서 10년 동안 활약했으며, 이후 2017~2018년 대학배구연맹이

사, 대한체육회 국가대표후보선수단 코치 등을 지냈다. 2018~2020년 목포대학교 코치에 이어 지난해 KB손해보험 코치로도 뛰었다.

이영수 코치도 세계청소년남자배구, 유니버시아드 등에서 국가대표로 뛰었으며, 2000~2008년 LIG 그레이더스 프로배구단 선수로 활동했다. 2009년 수원한일전산여고 코치를 시작으로 한국도로공사배구단(2010년), 선명여고(2013년), KB손해보험배구단(2018년) 등에서 코치 생활을 했다.

수석트레이너를 맡은 이상화 트레이너도 돋보인다. 그는 15년을 이어 온 ‘김연경 전담 트레이너’로 잘 알려졌다.

이 트레이너는 지난 2005년 김연경이 V리그에 데뷔했을 무렵부터 그의 트레이닝을 맡았다. 지난해까지도 흥국생명에서 김연경의 트레이닝을 담당해 온 그는 올해는 AI페퍼스에서 그간 쌓아 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다.



김형실 감독



이성희 코치



이영수 코치

이 트레이너가 본 AI페퍼스는 ‘준비 만전’이다. 그는 “선수들 체력 걱정은 없다. 시즌이 얼마 안 남은 만큼 그동안 키워 온 체력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주일에 3~4번씩 체력·근력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평소보다 강도를 높여 가벼워 운동, 무산소 지구력 훈련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즌은 6개월 동안 이어지는 대장정이다. 휴식·회복을 잘 하고, 운동 할 때는 무조건 집중해서 100% 최선을 다 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부상 없이 시즌을 잘 마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영수 코치



이상화 트레이너



“잘 해봅시다” 14일 서울 강남구 호텔 리베라 청담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 행사. 김형실(맨 오른쪽) AI페퍼스 감독을 비롯한 7개 여자 구단 감독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AI 페퍼스 ‘장신 세터’ 박사랑 선수 프로 데뷔 앞두고 ‘시즌 아웃’ 위기

‘장신 세터’로 기대를 모으는 AI페퍼스 세터 박사랑(사진)이 프로데뷔를 코앞에 두고 ‘시즌 아웃’ 위기에 빠졌다.

AI페퍼스는 14일 박사랑이 인대 파열로 발목 수술을 받게 됐으며, 재활에는 3~4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사랑은 지난 11일 대구여고 유니폼을 입고 전국체전에 출전했으나, 충북 제천여고를 상대하다 백토스 이후 선심 발을 밟고 넘어져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초 박사랑은 초음파 검진 결과 뼈를 다치는 큰 부상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로 복귀해 MRI 검사를 진행한 결과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구단 관계자는 “박사랑의 왼쪽 발목 인대 3개 중 2개가 끊어진 상태. 수술이 끝나야 더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사랑은 김 감독이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지명했던 유망주였다. 고교 최고 세터로 꼽히는 실력은 물론 큰 키(177cm)도 박사랑의 성장 가능성에 기대를 높였다.

김 감독은 드래프트 당시 “박사랑은 가장 실력이 출중하고, 키가 크다. 또 세터가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어서 가장 먼저 선택했다”고 언급했다.

구단은 박사랑을 제외한 이현·구술 2명의 세터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페퍼스 목표는 5승...패기와 열정 보여주겠다”

도드람 2021-2022 V리그 미디어데이

김형실 감독 “무에서 유 창조”
이한비 “팀워크 쌓는데 집중”
바르가 “항상 선수들과 어울려”

“AI페퍼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분으로, 어렵게 창단했습니다. 아직 20세도 안되는 어린 아이들이 많고, 평균 신장도 코지 않아요. 그래도 젊은 선수 패기와 열정으로 첫 출범 시즌을 맞고자 합니다.”
광주 프로 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김형실 감독이 14일 프로배구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짧고 패기 있는 시즌’을 펼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4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호텔 리베라 청담에서 프로배구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여자 7개 구단 감독과 대표 선수 1명, 외국인 선수 1명이 참석했다. AI페퍼스에서는 김 감독을 비롯해 주장 이한비, 외국인선수 엘리자벳 이네 바르가가 참석했다.



이한비



바르가

외국인 선수가 중요한 V리그에서 바르가에 거는 기대도 컸다. 김 감독은 올 시즌 가장 위협적인 외국인 선수로 경험이 많은 켈시 페인(한국도로공사)을 꼽았다. 다만 “우리 팀 바르가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1순위에, (많이 지목받지 않은 걸 보니)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모양이다”며 웃었다.

김 감독은 올해 여자부 리그가 ‘3강 3중 1약’ 구도로 흘러갈 것이라 예측했다. GS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등이 3강 체제를 굳힐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아마 저희 팀이 가장 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판세를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여지를 남겼다.

김 감독은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하더라. 구단에게는 (올 시즌) 목표를 ‘5승’으로 얘기했다. 목표 달성 시 공약을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어렵지만,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고 언급했다.

AI페퍼스 선수들은 다른 팀에 비해 바쁜 비시즌을 보냈다. 이한비는 “훈련 중간 중간 창단식 준비를 했고, 지난달 드래프트가 끝나고 비로소 선수들이 모였다”며 “지금은 팀워크를 쌓는 데 집중하며 최종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가도 “7월에 입국해서 자가격리를 마친 뒤에 야 팀에 합류했다. 평일에는 연습, 주말에는 선수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고 돌아봤다.

이한비는 ‘팀 감독을 7자로 표현해 달라’는 질문에 “우리팀수퍼관대”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한비는 “(광주에서는) 첫 경기부터 관중이 들어온다.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만큼 실시간으로 경기를 볼 수 있게 해 줘서 감사하다”며 “다른 팀도 빨리 관중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팬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한비는 주목받는 신인 선수로 ‘모든 신인 선수들’을 꼽았다. “우리 팀은 워낙에 신인이 많은데, 이번 시즌은 모든 신인들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모두 기대되는 신인들이야”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KBO 퓨처스리그 막 내려 ... KIA 33승 8무 49패 남부리그 6위

2021 KBO 퓨처스리그가 13일 열린 KIA와 KT의 경기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1개 팀이 참여한 퓨처스리그는 지난 4월 6일 막을 열었고 남부(KIA, 상무, NC, 롯데, 삼성, KT), 북부(LG, 고양(하이로즈), 한화, 두산, SSG) 2개 리그로 나눠 총 479경기가 진행됐다. 상무 야구단이 2012년 이후 10년 연속 남부리그 1위에 등극했다. KIA는 33승 8무 49패(승률 0.402)로 남부리그 6위를 기록했다.

북부리그에서는 LG 트윈스가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LG는 북부리그 2위 고양을 19경기 차로 따돌리면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LG 유망주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이재원은 16홈런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북부리그 홈런왕이 됐다. 좌완 임준형은 3.49로 평균자책점 1위에 올랐고, 지난 9월 3일 잠실 NC전을 통해 1군 데뷔전을 치렀다.

타격 1위 싸움에서는 두산 신성현이 0.331을 기록, 팀 동료 김민혁(0.330)을 1리 차이로 따돌렸다. 신성현은 타점 1위(59)에도 올라 2관왕이

됐다. 남부리그에서는 상무 박윤철, KT 김태오·이정현 등 3명이 10승을 기록, 다승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상무 투수 최성영(2.88), 내야수 서호철(0.388)은 각각 평균자책점과 타율 부문 1위에 오르며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삼성 외야수 이태훈은 12홈런, 65타점으로 ‘타격 2관왕’에 올랐다.

KBO 퓨처스리그 부문별 1위 선수는 포스트시즌이 끝난 뒤 열리는 KBO 시상식에서 트로피와 상금을 받는다.

한편 올 시즌 퓨처스 리그는 지난해에 이어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판정 시스템도 관련 장비와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 52경기에서 시범 운영했다.

또 매주 스포카도를 통해 유무선 생중계에 나서고, 퓨처스리그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현장 소식도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